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과제에 900억원 투입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일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해 혁신형기업으로 발굴·육성하고,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900억원 투입, 1300여 기술혁신개발과제를 지원한다고 지난 4월 28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일반 중소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청 전에 기술혁신성 수준평가를 의무화하고 일정점수 이상인 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과제개발 기간 내에 혁신형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중간점검을 면제하고 기술료 징수율을 인하하는 한편 격년제 지원원칙 배제 등의 특전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수혜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기업은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5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된 과제는 지방청의 현장 경영평가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업성 평가 및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오는 7월쯤 최종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수출용 우수 모바일콘텐츠 지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우수 모바일콘텐츠를 발굴, 해외 수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진흥원은 해외 수출 거점인 포팅센터를 주축으로 국내 제작 완료 혹은 제작 중인 우수 모바일콘텐츠의 발굴과 해외 수출을 위한 현지화 작업 및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대상 국가는 중국·일본·미국·유럽 등이며, 응모자격은 이번 사업의 수출 대상국인 중국·일본·미국·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모바일콘텐츠 제작사 및 해외판권 소유자이다.

단, 현재 정부/진흥원 사업지원에 제한을 받는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는 응모대상에서 제외된다.

응모분야는 애니메이션·캐릭터(아바타·월페이퍼)·벨소리·게임 등 모바일콘텐츠이다.

진흥원은 17개 내외 우수 모바일콘텐츠를 선정, KOCCA포팅센터를 통해 각 선정작별 400만원(중국) 혹은 800만원(일본/미국/유럽) 상당의 포팅을 지원한다. 포팅기간은 오는 6월부터 9월 까지.

응모는 포팅센터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portingcenter.kocca.or.kr)를 통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가능하다.

진흥원은 온라인에 접수된 제안서 및 데모버전을 토대로 해외 각국 전문가(산업계·학계·언론계 등)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내부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며, 5월 31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여성창업 및 경영혁신에 76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올해 여성의 창업과 경영혁신활동에 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여성부와 함께 150억원의 여성 전용창업자금을 지원하고, 4100여명의 여성 및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혁신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별 추진 내용을 보면 우선 금년에 12억원을 지원해 4100여명의 여성 및 여성기업에 실전창업 및 경영혁신교육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은 2100명의 여성에게 바리스타·토피어리·이 랜서 등과 같이 여성에 유리한 업종의 창업교육을 강화하며 여성기업인 1960여명에게 경영혁신연수를 실시한다.

또 전국의 14개 여성창업보육센터는 14억원의 예산으로 지역중심의 여성 비즈니스지원센터로 기능을 전면 개편하여 창업보육 및 종합적인 기업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여성기업수의 증가로 자금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안정적인 자금과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05년에는 정책자금 3360억원과 보증 3조2536억원이 공급된바 있으며 금년에는 지원규모가 이 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무역센터, 중소기업수출에 상반기 300억 지원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수출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위해 상반기중 3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 4월13일부터 희망업체를 접수했다.

무역협회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자체 조성한 무역기금으로 지원되는 이번 자금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과 수출이행에 직접 지원된다. 용자대상 기업은 중소기업법상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수출실적이 1천만불 미만인 기업이라고 한다.

용자조건은 연 4% 금리에 1년거치 후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으로, 수출실적이나 사업성에 따라 업체당 최고 4억원까지 용자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자금은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 80%, 기타 은행 신용 20%로 지원이 가능해 담보제공 부담을 덜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무역기금 사무국 및 무역 전국지부를 통해 가능하다.

특허기술사업화 지원규모 전년보다 32% 증가

정부는 개인·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난해 (2342억원)보다 32% 증가한 3089억원 규모의 '2006년 특허기술사업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농림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등 정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위원장 :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는 '신제품개발자금'에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412억원을 배정하고 '창업자금'에 631억원, '양산 및 시설자금'에 445억원, '평가·보증 및 거래자금'에 425억원, 그리고 '연구개발 및 권리화 자금'에 176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동 지원규모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중소기업청), 기술사업화투자산업(한국산업은행), 특허 기술가치평가보증(기술보증기금) 등 신규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30개의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원자금의 성격별로는 용자가 1497억원으로 가장 많고, 출연이 588억원, 투자가 545억원, 보증이 350억원, 보좌가 109억원의 순이다.